

백제창왕 銘文사리감 발견

능산리유적 목탑터서... 봉안시기등 '생생'

백제불교·미술사등 연구 획기적 자료

백제 사찰터로 추정돼온 부여 능산리유적 목탑터에서 백제 창왕(昌王:555~598)의 이름이 새겨진 명문(銘文)이 담긴 사리감(舍利函:사리를 모시는 감실)이 발견됐다.

이 명문에는 사리를 봉안한 시대, 공양자, 사찰의 건축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어 백제 불교사는 물론 불교미술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발견된 사리감은 화강석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진 사리감치이며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금동용봉래산왕릉이 발견된 바 있어 능산리 사찰터가 백제사 및 불교사 연구의 보고로 떠오르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관장은 지난달 23일 92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작업을 해온 부여 능산리 백제사찰터 목탑지에서 20글자의 명문이 새겨진 화강석제사리감(높이 74cm, 가로·세로 각각 50cm)과 소조 불·금동 및 은제고리·유리구슬·금동방울 등 6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목탑터의 땅 밑 114cm 아래에 묻힌 초석 상단에서 발견된 사리감의 양쪽면에는 '百濟昌王三十三太歲在 丁亥妹公主供養舍利'라는 각각 10자씩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명문은 "백제창왕 13년에 창왕의 누이가 공양한 사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정관장은 설명했다. (○자는 현재 해독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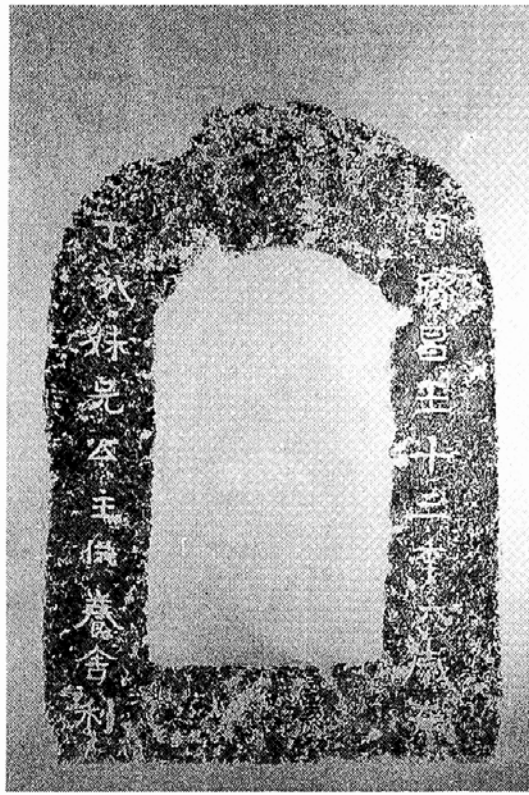
정관장은 이번 출토 유물들의 제작연대가 6세기 중엽쯤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던 유물들의 연대추정이 가능해져 능산리유적은 백제미술사연구의 기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찰터 초석주변에서 사리감의 조성연대와 비슷한 소조불·금동제고리·금동방울·유리구슬·금실·토제 인동꽃무늬장식 등 5백95점의 불교공예품과 장신구들이 대량 출토된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 발견의 커다란 성과로 꼽힌다. 정관장은 또 93년말 이 절터에서 출토돼 고고학 발굴사상



○사리감 주변에서 발견된 나한두(彌摩睺).
최고의 공예품으로 손꼽히는 금동용봉래산왕릉도 왕실 기원 사찰의 불교의식과 관련있는 유물임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불교미술문화학연구소장)는 "이번 발굴은 백제불교사와 불교미술사연구가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부여 능산리 유적 목탑터에서 발굴된 사리감의 명문탄본.

불심시심 <35>

도량 아닌 곳이 없다

何處青山不道場 (하처청산불도량)	어느 곳 푸른 산이 도량이 아니라란
勞勞身世走他方 (노로신세주타방)	신세만 고달프게 떠난 곳으로 달리네
若能信得家中寶 (약능신득가중보)	진실로 자기 집 보배만 얻을 수 있다
水水山山總故鄉 (수수산산총고향)	물 물, 산 산이 모두 고향인 것을
山中天子會成夢 (환중천자성정몽)	도성 안 천자도 이미 꿈으로 변했고
塞外將軍令不行 (새외장군령불행)	국경 밖에서는 장군의 명령도 통하지 않다
箇中拈起吹毛劍 (개중염기취모검)	그러나 터럭도 불러 자르는 칼 일으키면
新盡胡人宇宙清 (참진호인우주청)	오래가 다 배어 우주가 맑으리라

제일당대사가 청계도인(淸溪道人)에게 준 시이다. 스님들이 자유로이 이 산 저 산을 두루 참여함을 구름이나 물에 따르는 같으면, 어느 산 수행자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산 어디나 도량이 아닌 곳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산 저 산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내 집 안에 보배가 있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비가. 내 집의 보배를 믿는다면, 어느 산 어느 물이 되었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 고향이 아닌가. 그러기에 어디나 불성이 있듯이 나의 불성이 가당 고귀한 깨달음의 실체가 아닐까. 천하를 소유한 천자의 지위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도 지고고 나면 꿈이다. 왜 그럴까. 역시 천하라는 대상의 무게가 있어 얻어진 지위는 대상의 무게를 잃으면 그 지위마저 없는 것이요 그에 따른

나의 실체의 명칭도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이다. 장군의 호령도 국경이라는 제한된 경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기에 경계를 벗어나면 군령의 위력이 없는 한낱 자연인의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듯 경계로 한정된 명칭이나 실체는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는 헛것이다. 그 경계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경계를 초월한 주인을 찾아야 하고 그 주인을 나의 고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는 산 어느 물이나 진리의 본체요, 불성의 현현함을 알아 이 불성을 나의 실체로 체득한 삶에는 불어오는 터럭도 자르는 칼날과 같은 지혜로운 칼로 세속의 모든 먼지 터럭을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보물 '용미리 석불입상 2구' 제작연대 조선초로 재고증

고려초(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보물 제93호로 지정된 경기 파주군 광탄면 용암사 '용미리 석불입상 2구'는 조사결과 조선 세조11년(1465)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 지정 당시 고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경기도 문화체육과 박흥국 학예연구관이 총재 관독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 이 석불입상의 발원문을 탁본, 관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연구관은 "석불입상의 하

단에 지리한 발원문을 관독해 본 결과 '성화(成化)'라는 명나라 연호가 나오며 이는 세조 11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새로 발견된 명문에는 세조의 명복을 비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사리성분 분석 '화제'

불자들의 올바른 사리(舍利) 신앙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사리의 성분과 경도(硬度)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돼 화제에 되고 있다.

인하대 분석화학실(실장 임형빈)은 최근 백금요법연구학회(회장 목관호)로부터 사리 1과(類)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지난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름 0.5cm 정도의 팔알크기 사리에서 방사성원소인 프로타티늄(Pa)과 핵융합원료로 쓰이는 리튬(Li)을 비롯, 티타늄·니트륨·크롬·마그네슘·칼슘·칼륨·인상 등 12종이 검출됐다.

임실장은 "사리성분이 일반적으로 뼈 성분과 비슷했으나 프로타티늄·리튬·티타늄 등이 들어있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리의 경도는 1인5천파운드의 압력에서 부서져 1인2천파운드의 압력에서 부서지는 강철보다도 훨씬 단단했다는 것이 분석자들의 얘기다.

오현스님 '미천골 이야기' 가람시조 문학상



희관 개강당에서 열린다.

승려문인 1세대인 오현스님(신흥사 회주)이 시조 '미천골 이야기'로 제16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6시 광화문 한글

한때 천여 대중이 살았다는 말이 있어... 한참을 돌아다보았다 돌아다보았다 돌덩이가 탑(塔)이구나 탑이 돌덩이였나 버려진 하나 복원석(復原石) 손을 짚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남아야 탑신(塔身)이 되나

절은 허물어졌어도 절은 거기 있었다 한여름 사람사람을 피서를 즐기며 가는 그 옛날 뜨물이 흐르는 미천골 이야기로

미천(米川)골 이야기로 강원도 양양 땅 선림원지(禪林院地)에 갔다

한국유물전시실 개설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뉴욕시 소재)에 한국유물전시실 개설된다. 한국실은 97년말께 문을 열 예정이다.

참다운 수행과 삶의 방법 모색

정찬주씨 불교소설 '월월' 펴내

정찬주씨가 장편불교소설 '월월'을 내놓았다. <유마경>에 이어 발표한 이 소설은 '상구보리'로 대각을 이루려는 법상스님과 '화화중생'으로 대중종교에 매진하는 지용스님의 대치구도로 이뤄졌다. 의과대학을 나와 자신의 존재의미를 추구하며 승려가 된 법상이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반면 지용은 중원지역에 미소사를 창건. 천불타살사를 통해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데 수행의 의

지를 불태운다. 그 둘 외에 천불탑의 설계를 맡은 최림과 수행자가 인생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문으로 두 스님의 구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선과 교, 상구보리와 화화중생,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등의 갈등 대립구조를 긴장감 있게 풀아가며 참다운 수행과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줄기다. 특히 하권에서는 구도여행을 떠난 법상의 행적들이 인도라는 공간적 특징과 맞물려 매우 현

좋은 불교소설이라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태부사어를 제목으로 내놓은 이 소설은 수행의 방법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선택한 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의 확고한 성격들이 이끌어 가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결국은 원용의 자리에서 매듭을 풀고 있는 점이 정찬주씨의 불교소설에 대한 '인물 성장'이란 평도 높이고 있다.

정찬주씨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인도를 기행하기도 했다.

장경각 보수농고 이전

해인사 전연·문화재관리국 부분공사 주장

팔만대장경(국보 52호)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의 보수 문제를 놓고 해인사와 문화재관리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인사측은 즉각 전면보수를, 문화재관리국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우선부분보수 후 전면보수를 내세우고 있다.

해인사 총무 조성성스님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지붕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 증거가 많다"면서 "해인사에서 자체조사한 결과 지붕기와를 고르는 등의 전면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9월 두차례 파견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경관과 판부의 누수피해는 없었으나 지붕기와 골 입구가 미끄러져 출

러내리고 건물 내의 천정에 바쁜 흙 일부가 탈락돼 누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예산안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97년 이전에는 전면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긴급 복구터 부분보수를 한 뒤 97년에 전면보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홍흥성스님은 "장경각의 현 상태는 부분보수만으로는 안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연말쯤 권위있는 학자들의 종합진단보고서가 나오는데로 정부에 전면보수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일씨 등이 설계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유물전시공간 "법향 가득"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새청사 설계 공모작

2천년대 초 서울 용산가곡동 제2건축가연맹의 공인아래 국제 설계경기 방식으로 공모한 박물관의 설계공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부가 국

호주원주민 그림전

4~6일 부산문화센터

호주 원주민들이 직접 그린 상상화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국제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통도사 국제포교원(호주 시드니) '장법사' 주지 기후스님

한·중 불교문화교류 홍법회 공연

4일 중국소림사서... 불교합창단 찬불가등 소개

한국불교성악회합창단(회장 박민선)과 중국불교협회, 중국 소림사가 함께 주최하는 '한·중불교 문화교류 홍법회'가 오는 4일 중국 소림사(낙양시 소재)에서 개최된다.

7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불교 성악회합창단은 이번 행사에서 주력수령, 부처님께 귀의한다, 목련성, 고향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 찬불가 가곡 민요 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개한다.

중국 고위관리 및 소림사, 백마사 주지, 낙양시 공무원이 참석한 예정인 이번 교류전에서는 연주회뿐만 아니라 소림사 승려무술단의 시범공연도 펼쳐

다라니경 미국순회 전시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인쇄문화관련 성보가 미국에서 전시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뉴욕 퀸스도서관 5개 도에서 열리는 순회전시에서 '무주정광다라니경' 영인본 목판본 '지자심체요결' 금속활자본등 10점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인 갈등·혼동 형상화

정옥조무용단 6-8일 문예회관서 '겉' 공연

갈등과 혼동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겉(功)'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동송동 문예회관 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에 참가한 정옥조무용단에 의해 공연될 '겉'은 불교에서 말하는 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삶을 시간과 공간적인 또 공간과 시간의 사이를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정옥조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열린 공간, 정형화된 춤의 형태도 2인무, 3인무 또는 5인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여준다.

이덕환씨 '한' 주제전

자연·인간관계 담아

자연의 이미지를 절제된 화법으로 표현한 이덕환씨의 작품전이 지난달 31일까지 관촌동갤러리 터에서 열렸다.

원성스님 동승전 신부·수녀 3백여명 발길

원성스님 동승전 신부·수녀 3백여명 발길 이어졌다.

"그림통해 불교사상 깊이 자비의 참뜻 느꼈어요"

동승을 그린 스님의 전시회에 신부·수녀 3백여명이 발길을 이어 화제를 모았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으로서 동승의 소박하고 천진한 모습이 가슴이 따뜻해져 오는 걸 느낍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원성스님 동승전'을 다녀간 신부·수녀들은 동승들의 모습에 간직한 충격이라도 받은양 상기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타종교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녀, '엄마가 그림엔 날'이라는 작품 앞에서 눈물이 영글던 수녀 등 많은 진경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작품의 동승이 원성스님이나,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과 모습에 대해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느냐고 집요하리

만큼 물어오는 신부도 있었다. 우연찮게 전시장을 들른 이글레나 수녀(성령성교수도회)에게서 인보성체수도회, 성바오로수도회까지 전해진 동승의 모습은 선교의 길을 걸어 가야 하는 그들의 가슴에 간직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림을 보고 난 후부터 전시장을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며 원성스님과 친구가 되려 한다는 베드로신부 일행은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교의 자비와 사상의 깊이를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독일에 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동자승에게 받은 큰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아쉬운 표정이었다.

동승전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환희에 찬 그들의 모습은 그림을 통해 또 하나의 스승을 얻은 듯 했다. <필>

가람배치·입면구조 '독특'

이수민교수 '해인사 장경각 건축환경' 논문 발표

최근 해인사 장경각의 지붕기와가 파손되어 빗물이 경관을 적시는 등의 피해로 문화재관리국이 긴급 보수에 나선 가운데 장경각의 공간, 가람배치와 실내·외의 기후분석을 통해 건축환경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민전문대 이수민교수(건축설비과)는 지난달 25일 동국대학교원 주최의 '현대 환경문제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에서 '해인사 장경각의 건축환경'이란 논문을 통해 장경각의 독특한 건축환경을 분석했다.

이교수는 "장경각은 국내 최대·최고(最古)의 수장고(收藏庫)로서, 그 배치방식·입면(立面)의 구조 등에서 일탄 고건축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시 장인들의 건축

환경에 대한 인식과 건축계획 개념을 밝히고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수나라 장·법보전의 입면·후면형태는 효율적인 통풍을 위해 맞통풍을 의도한 결과이며 △장경각내의 온도분포는 외기(외경) 온도분포에 따르고 있고(실내·외 온도차:0.6℃) △장경각내의 습도분포는 여름철 89.9%, 겨울철 75.2%로서 실외습도에 따라 변화한다.

이교수는 "장경각은 국내 최대·최고(最古)의 수장고(收藏庫)로서, 그 배치방식·입면(立面)의 구조 등에서 일탄 고건축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시 장인들의 건축



◇이수민교수